

inex

with new sight

2012
vol.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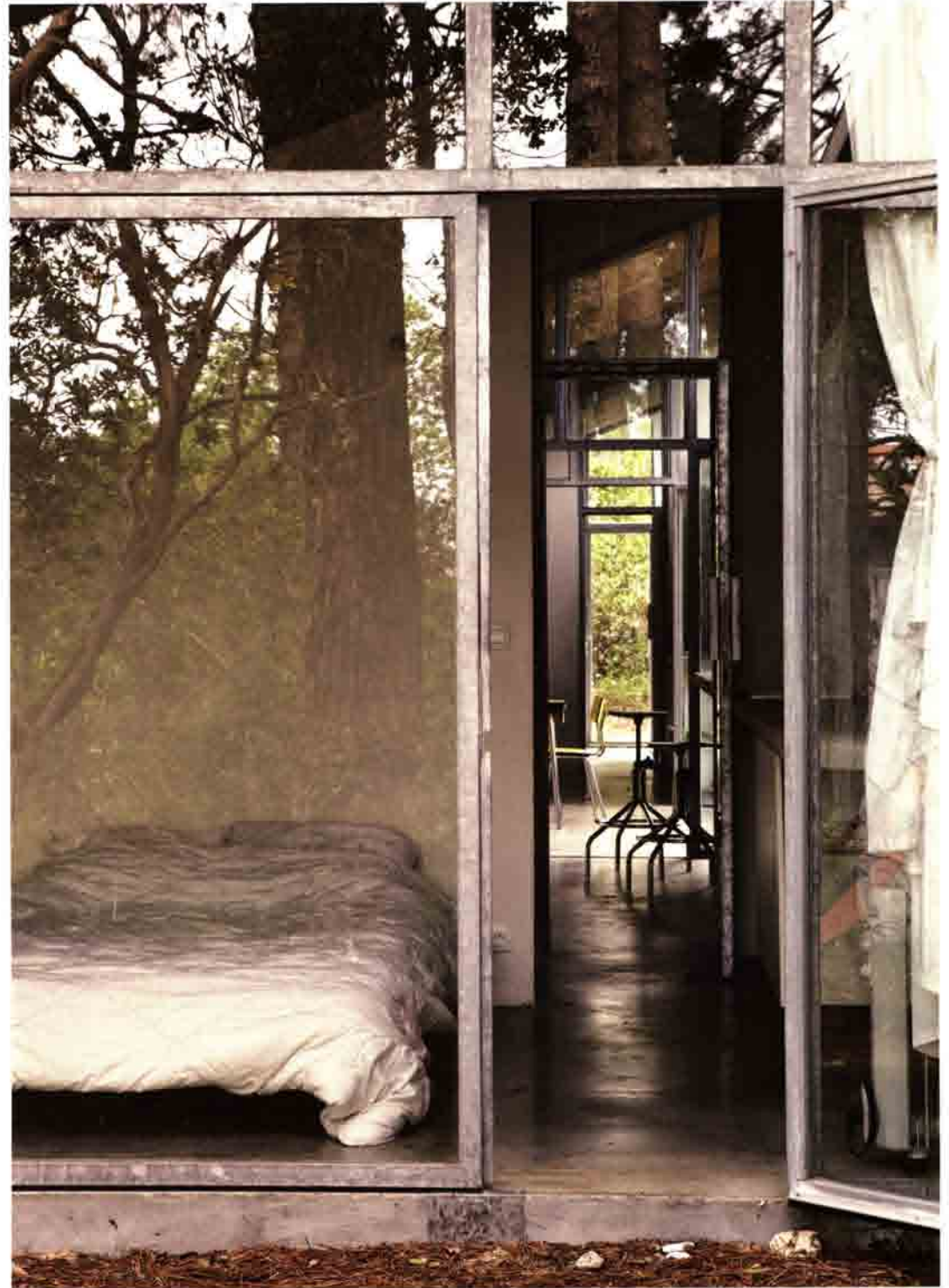
Maison *des Vacances*
휴가를 보내는 집

Maison *Secondaire*
두 번째 집

Maison *de Rêve*
꿈의 집

Cabanon
예술가의 집

Refuge
치유의 집



Second House



바람
과
그늘
과

별
과

집

오트 노르망디 지역의 너른 초원에 자리잡은 장 바티스트 바라슈의 목조주택은 일상을 떠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철학적인 문으로 가득하다. 전기설비도 없고, 가구도 거의 없는 이 집은 빛과 어둠을 적절히 교배해 신비로운 내면 세계를 보여준다.

건축가 장-바티스트 바라슈(Jean-Baptiste Barache)의 세컨하우스는 파리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북부 노르망디 지역의 작은 마을 오빌리에(Auvilliers)에 자리한다.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어 쉬는 기간이 비교적 긴 휴가철뿐 아니라 삶에 지쳐 재충전이 필요하거나 가족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언제든 갈 수 있을 만한 곳이다. 게다가 오빌리에에는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타지 않은 듯 시골 마을의 정취를 그대로 담고 있다. 관광객들로 들끓지 않고 자연이 많이 보존된 이 작은 마을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오빌리에의 너른 초원에 세워진 그의 집 역시 동네 풍경에 동화된 듯 평온한 모습이다. 목재널을 촘촘히 붙여 만든 외관은 이미 눈과 비, 그리고 바람에 자연스럽게 퇴색되

어 오래 묵은 나무 같은 빛깔을 드러낸다. 세월을 머금은 집은 적당한 정갈함으로 사람을 맞이한다. 일상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집이건만 환한 햇살이 쏟아지고 초록의 들판이 여과 없이 스며드는 집은 평온하기만 하다. 이곳은 장 바티스트 바라슈 가족이 자유롭게 공간과 자연을 향유하는 특별한 안식처다.

10여 년 전, 장 바티스트 바라슈는 자신의 건축적 이상이 담긴 집을 만들어보겠다고 결심하고 오빌리에를 찾았다. 그는 시골의 창고 같은 집을 구상했다. 넓고 탁 트였으며 내부에 박스를 중첩하여 실속 있게 공간을 배열하는 방법이었다. 집은 목조로 뼈대를 제작하여 현지에서 조립하여 세웠으며 벽과 마감 역시 목재로 했다. 별이 잘 들고 초록의 들판을 집 안에서도 마음껏 조망할 수 있도록 남측면은

완전히 유리로 구성했다. 집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저렴하게 마련했다. 공사기간은 18개월이 걸렸다.

“외벽의 나무널은 예전에 연극 무대로 사용되었던 목재를 재활용했어요. 수명을 다한 듯 색이 많이 바래고 결도 많이 얼그러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무에 새로운 시도를 했죠. 나무를 잘라 표면을 불에 그을려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나무 조각을 기왓장처럼 하나하나 덧대어 외벽으로 마감했다. 나무는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여 집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기후에 따라 집의 분위기에 변화를 준다. 비에 젖으면 오렌지 빛을, 햇빛을 받으면 은빛도 엿보이며 노르망디 지역의 날씨에 맞춰 변화무쌍한 색을 품는다.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위한 집을 지으며 건축가는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했다. 한 땀 한 땀 페매는 패션 장인처럼 장 바티스트 역시 재료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완성하며 모든 가구와 철물을 디자인하고 시공했다. 그리고 어떤 공간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느슨하게 풀어주는지 해법을 고민했다. 10년 후, 그의 집은 더욱 견고하게 내면을 충전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사각 박스

집의 내부는 크고 넓은 공간에 천장까지 닿은 박스를 채워 넣었다. 박스 북쪽은 주방이며 박스의 남쪽은 벌이 잘 드는 거실 홀이다. 집의 분위기는 어릴 적 시골에서 살았던 경험을 떠올려 그 느낌을 그대로 옮겨다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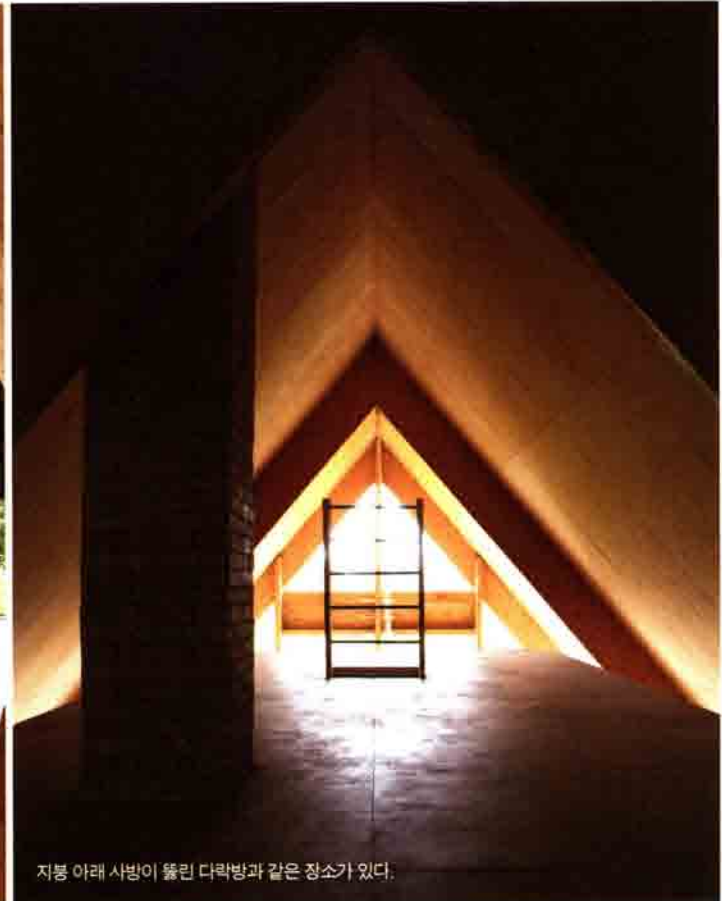
“어린 시절 살았던 시골집에 대한 인상이 무척 뚜렷해요. 넓은 초원에 세워진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일생에서 다시 한번 그런 공간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현관문을 열면 곧바로 부엌이 등장하는 것도 시골집의 경험이었다. 이 따듯한 느낌을 살려 부엌에는 벽돌을 쌓아 만든 벽난로를 설치했고 큰 원목 테이블을 두었다. 이 테이블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큰 가구다. 이곳에서 식사도 하고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쓸 수도 있다. 부엌은 예부터 도란도란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던가?

1층은 서재와 비밀스럽게 자리잡은 욕실이 있으며 중앙에 얹혀진 박스는 침실공간이다. 도미토리 형식으로 세 개의 침대가 마련



중첩된 박스들은 욕실, 침실, 서재 등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지붕 아래 사방이 뚫린 다락방과 같은 장소가 있다.



재활용한 나무는 특별한 시도를 통해 건조해졌으며, 변화무쌍한 지역의 기후를 담담히 받아낸다.

되어 있는데, 이 침실은 오히려 지극히 사적인 공간처럼 다가온다. 철봉에 매달린 커튼을 치면 널찍한 침대 공간이 오롯이 자신만의 상상으로 채워진다. 침대마다 개인 선반이 마련돼 있어 소지품이나 책을 놓아둔다. 침대 위에는 기름 램프를 매달 수 있는 고리가 있다. 커튼을 치고 램프에 불을 밝히면, 책을 읽거나 공상을 하는 등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된다.

사다리를 타고 한 층 더 오르면 경사 지붕 바로 아래 단 하나의 침대가 놓여 있다. 천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곳은 사방이 둘러싼 다락방과도 같다.

“이 집에서 가장 은밀한 공간이에요.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공간인데 이곳에서 마음이 가장 풍요로워지거든요.”

어둠 속에서 더욱 커지는 내면의 존재

이 집은 일반 프랑스 주택과는 달리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 신발을 벗음으로써 공간과 더욱 가까워진다. 남측 거실 홀의 유리문을 열고 나무 데크로 된 테라스를 맨발로 밟으면 자연과의 경계가 사라진 듯 느껴진다. 집을 둘러싼 너른 목초지의 풍경은 조화롭고 넉넉하다. 풍경 속에 젖어드는 동안 자연의 호흡에 동화된다. 이웃집과의 경계를 나타내는 나무 울타리가 서 있긴 하지만, 옷자란 풀들에 가려졌다. 경계는 희미해지고 외부의 다른 매개와도 서로의 장막을 거둔다.

환하게 쏟아지는 햇살은 집안의 모든 생명들에 자양분을 준다. 이 빛은 마치 온실처럼 공간을 데우고 사람에게도 활력을 준다. 테라스에 앉으면 민들레, 복수초, 금낭화, 썬

레꽃 등의 야생화들이 발을 간질인다. 풀을 밟고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전해오는 기운이 심신의 정화작용을 거드는 듯하다.

“이 집에는 전기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인공의 소리도, 빛도 없죠.”

장 바티스트 바라슈의 집에서 내면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가 풍긴 이유는 자연의 소리와 빛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 집은 일상의 집이라면 없어서는 안될 전기설비를 과감히 없었다.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불가능하다. 어두워지면 기름 램프에 불을 피우거나 촛불을 켜서 실내를 밝힌다. 풀벌레 소리나 바람 소리 외에는 사람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운다. 불필요한 장식이나 가구도 없다. 오로지 집이라는 너른 공간과 그 공간을 둘러싼 자연만이 존재한다.



거실과 이어져 남쪽으로 열린 테라스에 앉으면 자연과의 장막이 사라진다.

전기를 없앤 과감한 시도는 가히 놀랍다. 그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실을 완전히 떠나 초원 속에 파묻히길 원했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에 영감이 되어준 것은 자연주의 태두리를 벗어나 공상을 즐기는 일본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다니자키 준이치로 (Junichiro Tanizaki)의 소설이었다. 자연이 선사하는 빛과 그림자의 형태를 새롭게 바라보게끔 했던 소설 속 감성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장 바티스트는 자연의 빛과 어둠이 어우러지는 절대적인 순간을 이 집에서 녹여내고자 했다.

“오로지 자연의 빛을 통해 해가 뜨고 지는 상황을 뚜렷이 바라볼 수 있어요. 빛이 아스라이 사라져 갈 때 그림자가 반응하는 장면은 감동적이죠.”

밤이 되어 기름 램프에 불을 켜면 빛은 나를 둘러 열게 퍼져나가는 동심원을 만든다. 그 어떤 오브제보다 '나'라는 존재가 커지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여건이 마련된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작고 약한 빛은 더욱 밝아진다. 밖에서 보면 불을 밝힌 집의 모습은 마치 내면의 빛을 밝힌 사람의 형상처럼도 보인다. 고요한 침묵과 아스라한 어둠을 경험함으로써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체험하는 집이 완성된다. 집이 늘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공간을 통해 정신을 고양하고 내면을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장 바티스트 바라슈의 집에서 독특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